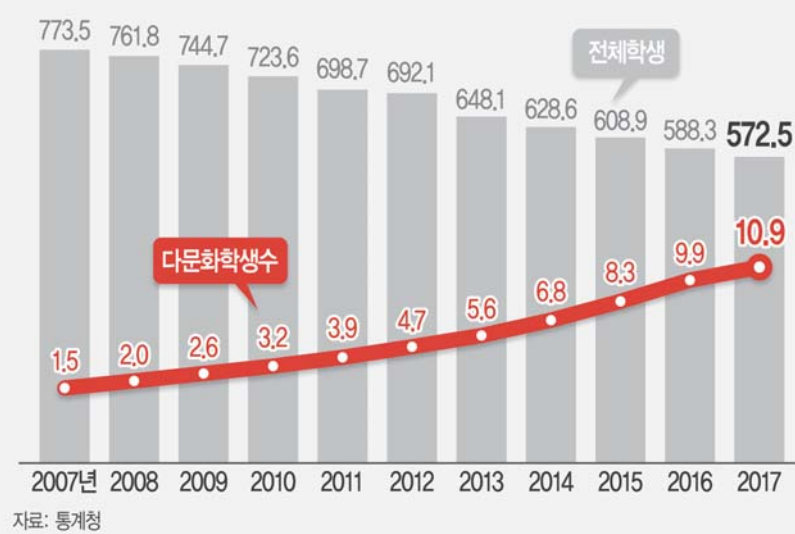


# 청소년인구 '감소추세'...다문화학생은 10만명 돌파

초·중·고 학생, 하루에 '2~3시간' 공부하는 비율 20.9%  
부모님과 매일 저녁식사, 27.0%...3년 전보다 10.5%p ↓

## [청소년통계]

청소년인구 및 다문화학생 수 추이 (단위: 만명)



우리나라 청소년인구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초·중·고 다문화학생은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6일 통계청의 '2018 청소년 통계'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인구(9~24세)는 전체 인구 중 17.4%인

899만명으로 1982년(1420만9000명)에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. 2060년에는 11.1%까지 줄어들 전망이다.

청소년 인구 중 남자는 470만 600명(52.3%), 여자는 428만 400명(47.7%)으로 남자의 구성비가 여자

보다 4.6%포인트 높았다.

올해 학령인구(6~21세)는 82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.0%를 차지했다. 2028년에는 693만3000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130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.

초등학교 학령인구(6~11세) 구성비는 1970년 17.7%에서 2018년 5.4%로 12.3%포인트 줄면서 다른 학령 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. 같은 기간 중학생(12~14세)은 5.4%포인트, 고등학생(15~17세)은 3.5%포인트, 대학생(18~21세)은 1.9%포인트 줄었다.

반면 초·중·고 다문화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0.3% 증가했다.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.

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 비중이 75.7%로 가장 많았다. 이어 중학생은 14.6%, 고등학생은 9.7%를 차지했다.

초·중·고 학생은 평일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2~3시간 공부하는 비율이 20.9%로 가장 많았다. 다음으로 '3~4시간'(19.8%), '1~2시간'(17.7%), '1



시간 미만'(14.5%) 등의 순이었다.

학교급별로 보면 초·고등학생은 2~3시간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학생은 3~4시간 공부한다는 응답이 23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한편 지난해 9~24세 청소년이 부모님(양육자)과 함께 매일 저녁식사를 하는 비중은 27.0%로 3년 전(37.5%)보다 10.5%포인트 감소했다.

청소년들이 월 1~3회 부모님과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는 41.4%로 가장 많았다. 부모님(양육자)과 적어도 '주 1회 이상' 저녁식사를 같이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3.9%로 집계됐다.

이들 청소년 중 현재 95.0%가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3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만족은 22.6%로 14.2%포인트 감소했다.

반면에 '약간 만족'은 72.4%로 18.4%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정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.

가정생활에 만족도는 남자 청소년(94.6%)보다 여자 청소년(96.5%)이 더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.

뉴스

## 청소년 10명 중 6명 '인생목표' 분명...5년 전비 5.7%p ↓

10점 만점에 행복감 7.1점, 삶의 만족도 6.8점

청소년 10명중 6명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.

26일 통계청의 '2018 청소년 통계'에 따르면 지난해 13~18세 청소년 중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.6%였다. 이는 5년 전보다 5.7%포인트 줄어든 수치다. 청소년 중 36.4%는 분명한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.

2012년과 비교해 볼 때 '매우 그렇다'는 17.5%포인트 감소한 반면, '그런 편이다'는 11.8%포인트 증가했다.

9~24세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행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행복감(7.1점)과 삶의 만족도(6.8점)는

5점 이상으로, 근심·걱정 정도(3.2점)와 우울 정도(2.5점)는 5점 이하로 집계됐다.

연령별로는 9~12세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 근심·걱정 및 우울 정도가 낮아 주관적 안녕감을 더 많이 느꼈다.

13~24세 청소년 중 65.5%가 가족, 친척, 친구, 이웃, 직장 동료 등 전반적인 개인적 인간관계에 '만족'했다. 성별로는 남학생(65.7%)이 여학생(65.3%)보다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13~19세 청소년(69.9%)이 20~24세 청소년(60.2%)보다 개인적 인간관계에 만족해 했다.

청소년 중 19.3%가 지난 1년 동

안 기부를 경험했다. 하지만 기부 경험은 2011년 33.0%, 2013년 25.9%, 2015년 24.7%로 감소 추세였다.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'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'(26.7%)가 2년 전(19.2%)보다 7.5%포인트 증가했다.

반면 '경제적 여유가 없어서'(49.1%)는 4.1%포인트, '기부방법을 몰라서'(7.4%)는 0.4%포인트, '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'(6.6%)는 1.7%포인트 감소했다.

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9.4%였다. 연령별로 13~19세(78.4%)가 20~24세(14.1%)보다 5배 이상 자원봉사를 경험했지만 참여 횟수와 봉사시간은 20~24세가 많았다.

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6.1회, 봉사시간은 18.6시간이었다.

## 청소년 10명 중 9명 "남녀 동등 권리 가져야"

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6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'2018 청소년 통계'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의 87.6%는 "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"고 답했다.

남학생(83.9%)보다는 여학생(91.6%)이 사회참여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실제로 청소년 투표율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선거)은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 지난해 19세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직전보다 3.7%p 증가한 77.7%였다. 연령별로는 19~24세의 투표율이 20대 후반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.

인권의식도 향상됐다. 청소년

95.9%는 "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"고 생각한다. 전년보다 1.6%p 증가한 것이다.

'표현의 자유'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. 2015년 94.0%, 2016년 94.7%, 지난해 95.6%였다. 남학생(93.5%)보다 여학생(97.8%)이 4.3%p 더 높았다.

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에 77.8%의 청소년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참가율은 2015년(72.6%) 이후 증가 추세다.

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0.3%로 중학생(76.2%)이나 고등학생(76.8%)보다 상대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더 많이 참여했다.

또 13~24세 청소년은 19.3%가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 추세다. 연도별로는 2011년 33.0%, 2013년 25.9%, 2015년 24.7%로 집계됐다.

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'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'(26.7%)가 2년전(19.2%)보다 7.5%p 증가했다. 반면 '경제적 여유가 없어서'(49.1%)는 4.1%p, '기부방법을 몰라서'(7.4%)는 0.4%p, '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'(6.6%)는 1.7%p 감소했다.

13~24세 청소년 49.4%는 지난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. 연령별로는 13~19세(78.4%)가 20~24세(14.1%)보다 5배 이상 자원봉사 경험은 많았다. 그러나 참여 횟수와 봉사 시간은 20~24세가 많았다.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6.1회, 봉사 시간은 18.6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부풀리고 조작된  
가짜뉴스는  
사라져야 합니다

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

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 
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 
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.

